

나주시, 세지면 축사 소송 패소 '시끌'

닭→돼지 축종 변경 허가 후 주민 집단반발에 취소했다 소송 주민들 "시 잘못으로 피해...돼지 입식되면 집단행동 나설 것"

나주시가 주인이 바뀐 축사의 축종 변경 허가 후 취소를 놓고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지면 오봉리 A축사는 오리와 닭을 번갈아 가며 사육하다가 지난 2015년에 경매에서 박 씨가 낙찰받았다.

박 씨는 그해 11월 나주시에 닭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업 변경허가신청'을 낸 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지한 마을 주민들이 시 조례를 들고 '거리 제한 내에 돼지사육허가는 잘못'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이에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행정절차를 논의한 결과, 앞서 닭을 사육했던 농장주로부터 "가축사육업 지위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씨에게 발부했다 축종 변경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축사의 박씨는 허가취소에 반발하며 지난 2016년 1월 강인규 나주시장을 상대로 '가축사육업 지위 승계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결과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주시는 즉시 상고를 했지만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결국 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수리 처분으로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를 각하 하였다"고 상고 기각했다.

시는 시 자문변호사들과 법률검토를 했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축사에 개축만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은 "시가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를 잘못 수리해 재산상 피해와 함께 삶에 타격을 버리고 떠나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시를 압박하며 "A축사에 돼지가 입식 될 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버리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A축사가 있다"며 "A축사가 오리와 닭을 사육할 때는 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박 씨가 인수해 축종 변경을 신청한 2015년에는 거리 제한구역 내에 10동의 주택 건축허가가 나 있었고 기존 주택이 포함하면 주택 17가구가 넘어 허가불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농장에서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우전문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양창근 대표는 "이곳에 수익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있고, 2013년 나주시에 10동의 주택 건축 허가를 낸 상태에서 시가 2015년 11월 양돈허가를 내줬다"며 "만약 돼지를 입식하면 주민들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허가를 내준 시에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2013년 조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제3조 제1항 제1호) 가항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



닭에서 돼지로 축종을 변경하기 위해 개축중인 세지면 오봉리 축사 건축 현장.

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 부칙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차례만 기존축사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부분만 삭제했다.

2016년 9월 개정에는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시는 돼지, 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닭·오리·메추리 축사는 8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가 축사의 주인이 바뀌고, 축종도 양돈으로 변경하려는 시기에 10동의 건축허가와 기존 주거시설이 다 수분포된 상황에서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를 불허 했어야 하는데 허가해줘 이미 효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다시 취소

하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낳게 됐다"며 "주인이 바뀐 축사에 축종 변경이 신규 허가에 해당될 경우 거리 제한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양창근씨의 경우 2013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역술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2016년 개정안처럼 거리 제한에 축종 구분과 축종 변경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고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조례에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를 반경으로 100미터 이내 인가가 5호 이상 모여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서로 100미터 이상 떨어져 분포되어 있으면 수십 채 이상 인가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바람길 숲' 조성 추진

산림청 공모 선정 100억 확보

나주시가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시지역 내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산림청 주관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 숲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 중 하나인 '도시 바람길 숲'은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폭염을 유발하는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춘 숲이다.

시는 국비(100억) 포함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빗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외곽의 산림과 도심 속 숲을 선형으로 연결해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0년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혁신도시에서부터 영산강 저류지 주변 일대에 바람생성 숲, 연결 숲, 확산 숲, 돌레길, 생태통로 등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심 숲 조성을 통해 녹색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공해, 악취 등을 외부로부터 차단시켜 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늦가을 8090세대 위해 '청춘 나이트 콘서트'

29일 나주문예회관에서

늦가을 8090세대를 위한 '청춘 나이트' 콘서트가 나주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나주문예회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청춘나이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춘콘서트에는 대한민국 대표 혼성 그룹 '쿨(cool)'의 리더 김성수, 원조 꽃미남 가수 김원준, 댄스그룹 R.ef의 보컬 이성욱, 가수 겸 DJ로 활동중인 춘자 등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한 댄스그룹, 가수들이 출동해 그 시절 그 추억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가수 춘자의 오프닝무대를 시작으로 R.ef 이성욱의 '이별 공식', '고요속의 외침', '상심' 등의 히트곡에 이어, 김원준과 쿨의 김성수의 흥겨운 합



동공연이 120분간 펼쳐질 계획이다. 입장권 예매 및 좌석예약은 선착순으로 인터넷 티켓링크 또는 공연 당일 문예회관에서 현장예매 가능하다. 관람비용은 전 좌석 1만원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제1회 마을합창축제' 개최

26·27일 15개팀 화합무대

나주시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제1회 마을합창축제가 개최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나주문예회관에서 관내 14개 마을합창단과 실버합창단(2팀), 외부 초청팀 등 단원 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나주마을합창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문화행복시책으로 도입한 읍·면·동 '마을합창단'은 '합창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나주'를 목표로 15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첫날 공연은 남평읍 하모니합창단과 영강동 영포물빛소리합창단, 금전면 금빛합창단, 영산동 영산강대지합창단, 다시

면 셋골합창단, 산포면 금빛합창단,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은파합창단(실버합창단)과 특별 초청된 대전광역시 판암2동 파나미합창단이 무대를 꾸민다.

둘째 날은 빗가람동 빗가람합창단, 반남면 마한합창단, 성북동 은누리합창단, 왕곡면 소리모아합창단, 노안면 노인마을합창단, 송월동 벚들합창단, 다도면 다도호수합창단, 동강면 느리지합창단, 나주시노인복지관 배꽃소리합창단이 100분간 감동의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별도 입장권 발부 없이 무료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행복엔진 마을합창단의 첫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



나주시는 26일부터 나주문예회관에서 '제1회 마을 합창축제'를 개최한다. 시립합창단 등 합동공연 모습.

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난 10월 18일 1000인의 시민 합창 무대에 이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나주의 희망과 화합을 노

래하는 뜻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동강면 장동·곡천리 지적도 100년만에 다시 조정

829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나주시 동강면 장동·곡천리에 지적도를 100년 만에 다시 조정 완료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동강면 장동1지구와 곡천1지구 총 82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마무리 짓고 최종 공부정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과 실제 토지의 경계가 불일치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해당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

민설명회,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또 시는 이번 공부정리로 주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 간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찬웅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강면 지적 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건우 New Square 용산타워 조은프라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의대 완료
 >> 멀티여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용산지구 리모델링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